

광주 4분기 소매유통업 경기전망 '흐림'

광주지역 4분기 소매유통업 체감 경기가 1분기 만에 다시 부정적으로 전망됐다.

16일 광주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최근 광주지역 107개 소매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2017년 4분기 소매유통업 경기전망지수(RBSI)'를 조사한 결과, 전분기(102)보다 19포인트 하락한 '82'로 집계됐다.

체감경기 전망지수가 1분기 만에 다시 기준치(100) 밑으로 하락한 데는 경기 불확실성으로 인한 소비위축 불안감과 서민불가 상승, 계절요인에 따른 실적부진 우려가 함께 반영된 것으로 보여진다.

광주상공회의소, 107개 업체 경기전망 조사 '소비위축' 전분기比 19 포인트 하락한 '82'

RBSI(Retail Business Survey Index)는 유통업체들의 현장체감경기를 수치화한 것으로, 지수가 100을 넘으면 다음 분기 경기가 이번 분기에 비해 호전될 것으로 예상하는 기업이 더 많음을 의미하며, 100 미만이면 그 반대다.

한편 3분기 'RBSI 실적지'는 '100'로 집계돼 1분기(72)보다 28포인트 상승했다. 대형마트(48→119)와 슈퍼마켓(105→108)은 호전된 반면, 인터넷쇼핑몰(102→83)과 백화점(93→70)은 부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업체별로 살펴보면, 대형업체와

소형업체 모두 4분기 경기를 부정적으로 전망했다.

대형업체인 백화점(132→85)과 대형마트(84→79)는 소비심체 불안감 속에 소비 트렌드 변화와 아울렛, 온라인 쇼핑물 등 경쟁체질의 부각, 규제 강화 분위기 등으로 영업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점을 부진요인으로 꼽았다.

동네상권인 슈퍼마켓(94→96)은 각종 생활과 서비스 불가 상승세가 소비자들의 구매위축으로 이어질 것을 염려했으며, 편의점(93→87)은 경쟁점포 과다와 쌀쌀한 날씨로 인한 계절제품의 판매 감소가 영업부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

4분기에 광주지역 소매유통업체 경영실적에 영향을 미칠 요인으로 '소비심리 위축에 따른 매출부진(46.8%)'을 가장 많이 꼽았다. 다음으로는 '업체간 경쟁격화(16.1%)', 기타(12.9%), '업체 내 경쟁 심화(11.3%)', '상품가격 상승(8.1%)', '판촉·할인 행사(4.3%)', '광고 확대(0.5%)' 순으로 나타났다.

광주지역 소매유통업체가 겪게 될 가장 큰 경영여로 요인으로는 '수익성 하락(47.9%)'이 가장 많이 거론됐다. 이어 인력부족(16.0%), 유통관련 규제강화(13.9%), 기타(9.7%), 자금사정 악화(8.3%), 정부정책의 비일관성(3.5%), 노사문제(0.7%) 등을 차례로 꼽았다.

광주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코로나세일페스타 등 소비심리 견인을 위한 판촉 이벤트 등이 미뤄지고 있지만 소비위축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지역 유통업체들의 체감경기가 풀리지 않고 있다"며 "내수 진척과 소매유통업 활력 제고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강화돼야 할 때"라고 말했다.

서은홍 기자



제네시스, 경쟁력 강화 'G80 2018년형' 출시

제네시스 브랜드가 16일 상품성을 강화한 'G80 2018'을 출시, 본격적인 판매에 돌입했다.

G80 2018은 ▲스포츠 디자인 패키지 추가 ▲3.3 모델 최상위 트림 신설 ▲안전·편의 사양 확대 등 상품 경쟁력을 대폭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제네시스 브랜드는 고객 반응이 좋았던 3.3T(스포츠) 모델의 다이내믹한 디자인을 3.3 모델에서도 느낄 수 있도록 '스포츠 디자인 셀렉션' 패키지를 추가했다.

스포츠 디자인 셀렉션은 3.3T 모델과 동일한 형태의 앞·뒤 범퍼, 라디에이터 그릴, 다크 스퍼터링 휠, 전용 스티어링 휠, 메탈 페달 등으로 구성됐다. 3.3 모델의 프리미엄 럭셔리/프리미엄 스티지 트림에서 선택할 수 있다.

제네시스 브랜드는 3.3 모델에 FULL LED 헤드램프, 고스트 도어 클로징 등으로 고급감을 더한 최상위 트림 '프리미엄 스티지'를 신설했다.

또 첨단 주행지원 기술 '제네시스 액티브 세이프티 컨트롤'의 기능 중 핵심 안전 사양인 ▲후측방 충돌 경고 ▲주행중 후방 영상 디스플레이를 3.3 모델 전 트림에 기본 적용하는 한편, 3.8 모델 및 3.3T(스포츠) 모델에는 제네시스 액티브 세이프티 컨트롤 전체를 기본 적용해 안전성을 대폭 향상시켰다.

뉴스



기방이야? 향수야?

롯데백화점 광주점 2층 향수 코너에서는 마크제이콥스 디자인 데카당스 향수를 선보였다.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이 계절의 대표적인 향수로 머스크 우디 계열의 따뜻한 향이 포근한 느낌을 주는 연발파티, 특별한 장소에서 돋보이기 좋은 향수이다.

'8·2 대책'에도...9월 가계대출 6.2조 증가

8·2 부동산 규제 등 정부의 각종 가계부채 대책에도 지난달 금융권 가계대출이 6조2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증가세는 다소 둔화됐다는 평가다.

10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9월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은행권과 제2금융권 등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전월대비 6조2000억원 증가했다.

가계대출 증가폭은 지난해 9월(+10조2000억원)보다 소폭 축소됐다. 8월(+8조7000억원) 대비 증가세도 둔화됐다.

업권별로 살펴보면 은행권의 9월

가계대출은 전월보다 4조9000억원 증가했다. 지난해 9월(+6조5000억원) 대비 증가세는 둔화됐다. 전월(+6조5000억원)에 비해서도 1조6000억원 감소했다.

금융당국, 지난해 동기 10.2조보다 축소
전월인 8월의 8.7조 대비 증가세도 둔화

주택담보대출이 2000억원 늘어난 반면 주식 상여금 효과 등으로 신용대출이 1조8000억원 줄어든 영향으로 풀이된다.

제2금융권의 경우 9월 가계대출

이 전월보다 1조3000억원 늘어났다. 전년 동월(+4조3000억원) 대비 증가세는 주춤했다.

상호금융 가계대출(+7000억원)이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전월보다 증가했다. 보험 5000억원, 저축은행 5000억원, 여신전문금융회사 2000억원 늘어났다.

한편 올 들어 9월까지 금융권 가

계대출은 총 64조6000억원 증가했다. 전년 동기(+84조9000억원) 대비 20조3000억원 줄어 들었다.

금융당국은 9월 금융권 가계대출이 전년 동월과 전월 대비 모두 증가 규모가 둔화되는 등 안정적인 증가세를 유지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8·2 부동산 대책 효과가 보다 가시화되면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한 가계부채 증가세가 더욱 안정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금융위 관계자는 "다만 통상 하반기에 가계대출이 증가하는 경향 등을 감안해 가계부채의 취약요인 등을 점검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조만간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뉴스

아우디폭스바겐 다음달부터 판매재개 움직임

지난해 디젤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조작으로 판매중단조치를 받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이르면 다음달부터 주력 차종 판매재개에 나설 것으로 알려지며 자동차업체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판매 재개를 앞두고 있는 차량은 지난 8월 환경부 인증을 마치고 최근 국토교통부 제원 등록과 산업통상자원부 효율 인증 절차 마무리단계에 접어든 아우디 A6

와 Q7, 폭스바겐 티구안과 파사트 GT 등이다. 이 가운데 아우디가 가장 먼저 판매를 시작할 것으로 관측된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관계자는 16일 판매 재개 시점과 관련, "아직 결정된 것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자동차업체는 아우디폭스바겐이 다음달부터 주력 차종 판매 재개에 나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광주형일자리는 기업하기 좋고 일하기 좋은 사회를 만드는 우리의 정책이며 시민과 함께하는 사회혁신운동입니다.



광주형일자리는 기업의 경쟁력과 지속발전,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삶의 질 향상을 실현합니다.

광주형일자리는 사회적 합의를 통한 상생과 나눔으로 더불어 사는 광주를 만듭니다.



광주형

일자리





빛그린산단에 '친환경자동차 부품 클러스터 조성' 사업에 연계한
「광주형일자리 선도 모델」 구축


